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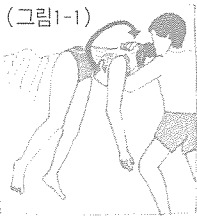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응급 처치 요령(2)

1.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의 응급 처치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에는 주로 물이 기도나 폐로 유입되어 기도가 폐쇄되거나 호흡 기능이 저하되어 의식을 잃게 되므로, 빠른 시간 안에 인공 호흡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수면 위에서 취해야 할 응급 처치

수면 위로 환자를 구조하는 순간부터 인공 호흡을 시행해야 한다.(그림1-1,2)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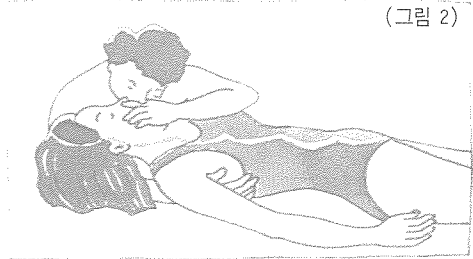


(그림1-2)

제대로 알자1

- 구조하자마자 가슴을 누르거나 환자를 엎드리게 하여 물을 빼낸 다음에 반드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
- 물에 빠진 경우에 폐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폐(허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으므로 폐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시행한 다음에 의식이 회복되었다면 귀가시켜도 좋은가?
- 현장에서 응급 처치로 의식이 회복하더라도 24~48시간 내에 2차적인 폐렴이나 호흡 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48시간 정도 입원하여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그림 2)



2) 지상에서 취해야 할 응급 처치

인공 호흡을 하면서 수면에서 지상으로 환자를 구조한 다음에는 목의 경동맥에서 맥박을 확인하며(그림2), 맥박이 있으면 인공호흡을 계속하지만 맥박이 만져지지 않으면 바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다.

2.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의식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응급 의료 체계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응급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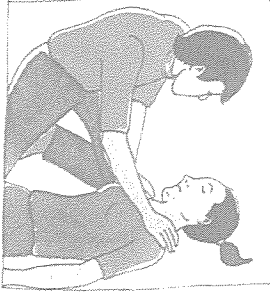
제대로 알자2

-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는 찬물을 먹여서 의식을 회복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 만일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게 되면 물이 기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막거나 나중에 폐렴 등을 유발하므로 절대로 금해야 한다.
- 당뇨병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반드시 설탕물을 먹여야 하는가?
- 일체 입으로 먹여서는 안 된다. 단, 의식이 있으면서 저혈당 증세(식은 땀, 속이 메스 거림, 정신이 희미해짐 등)가 동반되는 경우에만 설탕물이나 사탕 등을 먹인다.

치를 해야 한다.

1)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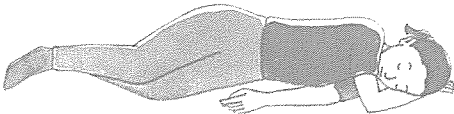
환자의 어깨를 잡고 살며시 흔들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혹은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해 본다(그림3). 환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응급 의료 체계(전화 119)로 연락을 취한다.



(그림3)

2) 혼수 상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응급 처치)

구급차를 요청한 다음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며, 호흡이 정상이라면 그대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기다린다. 단,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회복 자세(그림4)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4)

호흡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얼굴을 환자의 얼굴에 가까이 하면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호흡이 있으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이 관찰됨), 귀로는 환자의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측각을 이용해서 환자가 내쉬는 숨(공기)을 확인한다(그림5).

만일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이상한 호흡음이 들리면 손가락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 올린 후에 호흡음을 다시 관찰한다(그림6). 호흡이 없으면 인공 호흡을 2회 시행하면서 심폐 소생술에 따라 응급 처치를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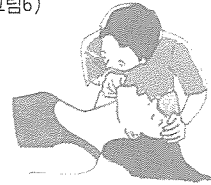
<표> 심폐 소생술의 응급 처치 과정

의식확인 · 119 신고 ⇒ 기도유지 ⇒ 호흡확인
⇒ 인공호흡 ⇒ 맥박확인 ⇒ 흉부압박

(그림5)



(그림6)



3.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

인공 호흡과 흉부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심폐 소생술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멎게 되면 4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이 시행되어야만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연령이 9세 이상이거나 체중이 30kg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다(9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그 시행 방법이 다르다).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접근하여 의식을 확인한다. 환자가 반응하면 환자의 체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관찰하고, 반응이 없으면 주위 사람에게 부탁하여 즉시 응급 의료 체계로 연락한다. 도와 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1분간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후 도움을 요청한다.

- ① 사고에 의해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한 경우
- ② 물에 빠진 후에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한 경우
- ③ 8세 이하의 소아에서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한 경우
- ④ 이물(사탕·고기 등)에 의해 기도가 폐쇄된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이렇게 하자' 에서 발췌>